

제주 방언 부사 연구

문갑순*

목 차

I. 서론	IV.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적 특징
II. 제주 방언 부사의 분류	V. 결론
III. 제주 방언 부사의 호응 관계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목적

방언은 그 지방만이 간직한 고유 언어로서, 그 지방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 있는 언어이다. 특히 제주도는 방언의 보고(寶庫)라고 할 만큼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특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방언을 이해하는 일은, 제주인의 통속과 인심을 파악하여 지역민들의 성정을 순화하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보존 가치가 두드러진 소중한 문화 유산인 제주 방언이 점차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것의 분석과 문법 체계의 정립 등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주 방언의 모습을 확인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제주 방언에서 특이하다 할 수 있는 점으로 부사의 풍부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특히 제주 방언에는 표준어와는 다른 맛깔스러운 느낌과 독특함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사

을 보이는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방언 자료집이나 사전에만 실려 있고 실제로 젊은
 층들이 쓰지 않아서 그 가치를 인식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노년층 언중들만이 사
 하고 있는 제주 방언 부사가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부사를 조사
 하여 분류하고, 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고 제주 방언의 특질을 찾아보는 데 연구 목
 이 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부사와 제주 출신 노인층이 사용하
 있는 부사 중에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어 사전에 실린 부사의
 효는 대략 1,129개인데 이것은 이형태나 중첩형을 각각 하나로 잡아서 계산한 것이다.
 사는 단어 형성에서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의성어나 의태어, 첩어
 제외한 본래부사와 그밖에 제주 출신 언중들이 쓰는 부사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제주 방언 부사를 최현배의 분류 방식에 적용시켜 그 용례들을 찾아보고, 각각의 단
 들의 의미를 살핀 후 호응 관계를 살펴 부사의 성질을 밝히고 제주 방언에서만 찾을
 있는 어휘적 특징도 찾아보기로 한다. 이 때 표기는 「제주어 사전」 목록에 실린 「제주
 표기법」에 따르고, 인용문은 될 수 있는 대로 원문 그대로의 표기를 적용하겠다. 다만,
 제주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언중들이 사용하고, 그 의미가 분명한
 은 「제주어 표기법」에 맞추었으며, 인용문은 실제 언중들이 사용하는 예를 들었다.

3. 선행 연구

제주 방언 자료집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왔다. 석주명(1947)의 「제주도 방언집」이
 것이다. 이후 박용후(1960, 1988)의 「제주 방언 연구 (자료편)」과 현평효(1962, 1985)의
 제주도 방언연구 (자료편)」이 간행되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
 이 출간되었다.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는 소창진평(小倉進平: 1911년)에서부터 비롯되어 많은 학자들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형태·통사론적 연구로는 이승녕¹⁾, 현평효²⁾, 성낙수³⁾,
 정희⁴⁾ 등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고, 어휘론적 연구로는 박용후⁵⁾, 현평효⁶⁾, 강영봉⁷⁾

- 1) 이승녕(1985),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연구총서 5, 탑출판사.
- 2)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3) 성낙수(1975),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 4) 강정희(1988), 「제주 방언 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 5)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 (자료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 6)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1 (자료편)」, 정연사.
- 7) 강영봉(1993), 「제주도 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 논문.

이 있고, 문법 분야에서는 문순덕⁸⁾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개별 언어 영역에 대해 이루어져 왔고, 문법 분야에서는 활발히 논의되는 일부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어휘론 분야에서는 명칭이나 단어의 의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품사론인 경우 '부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단지 반복부사⁹⁾나 상징어¹⁰⁾의 경우에 한해서 연구된 경우가 몇몇 있고 부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늘 제주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제주 방언 연구를 하게 되었다.

II. 제주 방언 부사의 분류

1. 본래 부사와 전성 부사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수식언으로 분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최현배는 “어찌씨(부사)는 풀이씨(용언)의 앞에서 그 뒤의 풀이씨가 어떠하게(어찌) 드리남을 보이는 씨를 이름이니 ‘어떠하게’(어찌) 하(되)느냐? 의 물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대답하는 말에 해당하는 씨이니라”¹¹⁾와 같이 부사를 정의했으며, 허웅은 “주로 그 다음에 오는 풀이말의 뜻을 꾸미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¹²⁾라고 부사를 정의하였다.

부사를 분류함에 있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김민수, 이기문은 본래부사, 전성부사, 첩용부사로 분류하였고¹³⁾, 심의린, 이완웅은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이승녕은 본래부사와 전성부사, 직접부사와 간접부사로 분류하였다.¹⁴⁾

부사는 단어 형성에서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나뉜다. 본래부사란 국어의 생성 당시부터 원래 부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의성어, 의태어도 본래부사인데 같은 말이 거듭되었을 때 특히 첩용부사라 이른다. 전성부사는 어근이나 어간에 여러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것이다.

최현배는 풀이씨(용언)를 꾸미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순전한 어찌씨나 아주 어찌씨로 익어 버린 것들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¹⁵⁾

8) 문순덕(2003), 「제주 방언 문법 연구」, 세림.

9) 강공택(1986), “제주방언의 반복 복합부사 구조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이영희(1982), “제주도방언의 상징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pp. 588~590.

12)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샘출판사.

13) 이기문·김민수(1968), 표준중등문법론, 어문각.

14)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 I 품사, 역락, pp. 313~314.

15) 최현배, 앞의 책, pp. 588~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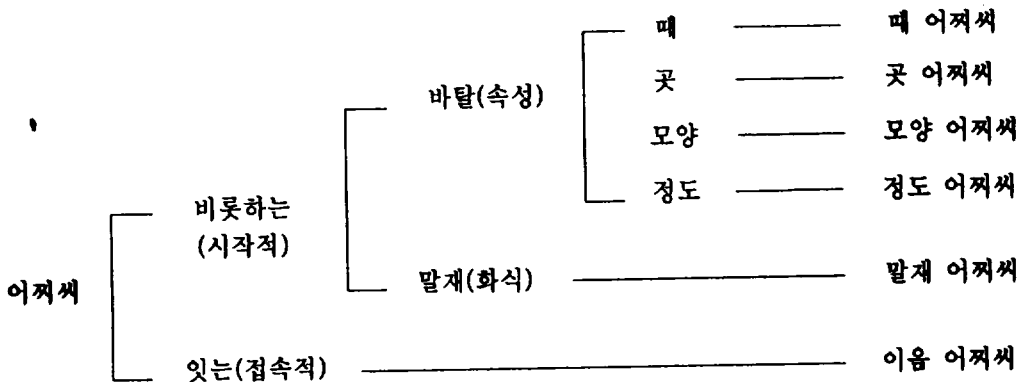
- ① 순전한 어찌씨인 것 : 매우, 우수수, 일찍, 먼저, 나중, 졸졸 등
- ② 역시 어찌씨인 것 : 내일, 어제, 그저께, 잠깐 등
- ③ 역시 어찌씨인 것 : 비로소, 자주, 너무, 결코 등
- ④ 역시 어찌씨인 것 : 굳이, 같이 등

여기서는 편의상 최현배의 정의에 따라 순전한 어찌씨, 역시 어찌씨로 구분한 ①~④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본래부사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국어 부사의 분류

부사는 품사의 일종으로서 항상 용언 또는 용언형 혹은 다른 부사를 꾸미는 위치에 쓰이는 단어이며 활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정되는 용언이 가지는 뜻을 더 명확히 밝히면서 그 용언에 지배된다. 부사는 그 한정하는 내용에 따라 시간(이제, 가끔), 처소(저리, 이리), 상태(잘, 빨리), 정도(매우, 너무), 화식(꼭, 만일)의 부사 등으로 나누고, 학자에 따라서는 접속부사를 설정하여 “그러나, 그러므로, 그러면” 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김형규는 부사를 시간부사, 처소부사, 상태부사, 정도부사로 분류하고, 접속부사는 접속사로 처리하였고¹⁶⁾, 김민수는 부사를 상태, 정도, 수량, 지시, 처소, 시간, 양태 등으로 분류하였으며¹⁷⁾, 최현배는 ‘우리말본’에서 부사를 그 뜻으로 보아 때 어찌씨(시간부사), 곳 어찌씨(처소부사), 모양 어찌씨(상태부사), 정도 어찌씨(정도부사), 말재 어찌씨(화식부사), 이음 어찌씨(접속부사)의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 논문에서는 최현배의 분류에 적용시켜 고찰하기로 한다.¹⁸⁾



16) 김형규(1972), 국어학개론, 일조각, pp.170~171.

17) 김민수(1974), 국어문법론, 일조각, p.154.

18) 최현배, 앞의 책, pp. 594~604.

1) 때 어찌씨(時間副詞)

그 일이 드러남을 때로써 꾸미는 어찌씨로서, 때의 점을 보이는 것,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의 네 가지가 있다.

2) 곳 어찌씨(處所副詞)

곳, 쪽(방향), 뜨기(거리)에 관한 어찌씨가 있다.

3) 모양 어찌씨(狀態副詞)

그 뒤의 풀이씨의 속(내용)이 되는 일의 드러나는 모양을 꾸미는 어찌씨로서, 이에는 바로 그 내용을 보이는 바로 모양 어찌씨와 건너로(간접으로) 그 형식만을 보이는 건너로 모양 어찌씨의 두 가지가 있으며, 또 바로에는 다시 속모양(방법)과 겉모양(외모)의 가름이 있으며, 또 겉모양에는 다시 일의 겉풀과 몬(물건)의 겉풀의 두 가지가 있다.

4) 정도 어찌씨(程度副詞)

바달(속성)의 드러나는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에는 그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것과 낮음을 보이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5) 말재 어찌씨(話式副詞 또는 陳述副詞)

말하는 이의 뜻을 배푸는 태도에 관한 어찌씨이니, 그 풀이말의 진술 방법을 꾸미어서 그 풀이말의 나타남에 따라 일정한 재(식, 방식, 양식)가 있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단정을 요구하는 어찌씨,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어찌씨, 바람을 보이는 어찌씨 등이 있다.

6) 이음 어찌씨(接續副詞)

앞에 간 말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어찌씨로서, 앞뒤 말을 잇는 것과 월의 첫머리에서 그 앞의 월의 뜻을 이어서 다음의 월을 일으키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3. 제주 방언 부사 용례

제주 방언 자료를 조사하여 추출한 바를 표준어와의 대비를 통해 정리하고, 제주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 언중들에 의해 쓰이는 말 중 필자가 직접 채록한 부사를 포함시켜 그 용례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주 방언 부사 용례

類意 표준어	사진수록 방언부사	채록한 방언부사	용례(표준어 해석)
실없이, 철(분수)없이	거령칭이 (거령생이)	철딱산이 어시	▶거령칭이(철딱산이 어시) 눅뜨고 있저. (철없이 날뛰고 있다.)
거꾸로(거슬러)	거스로 (진행방향)	느뫼사(위치)	▶거스로 가른 질 잊어부러. (거꾸로 가면 길 잃어버린다.)
얼른(빨리), 서둘러	시쑤, 기쑤	하-, 기쑤	▶몽케지 만양 기쑤 하리. (느릿느릿하지 말고 얼른 해라.)
거의	거진, 거자, 건쑤	건쑤	▶일이 거자 다 끝나감저. (일이 거의 다 끝나간다)
그러거든	게거든, 게건(경)	게걸랑, 게거들랑	▶게거든 일 다 멉청 오라. (그러거든 일 다 끝내고 오라.)
그리고저러고	게고제고	경허고정허고	▶게고제고 잘 먹엄저. (그리고저러고 잘 먹는다.)
그러나저러나	게나제나	경허나정허나	▶게나제나 이 일을 어떻게 하코. (그러나저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 그러니까	게난, 게나네	경허난	▶게난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겐? (그러니 그 다음은 어떻게 할려고 하니?)
그러다가	게당	경허당	▶게당 늦으키어. (그러다가 늦겠다.)
설마, 아무리한들	게무로, 겐들	게무로사	▶게무로 그런 일이 춤말 이시카?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그러기에, 그러므로	게메	게난, 경허난	▶게메 정 하영은 안 돼주.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게민	경허민	▶게민 후제 따시 만나주 (그러면 다음에 만나자.)
그래도	게도	경해도, 경허여도	▶게도 열심히 노력해야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들, 그래도	게므로, 게므로	경헌들, 경허여도	▶게므로 어떻게 하여게? (그런들 어떻게 하리?)
쉬지 않고 자꾸	고들베, 고들베	쫓게, 쫓아지게	▶고들베 귀찮게 굴엄저. (자꾸 귀찮게 군다.)
곧이, 있는그대로	고제, 고자, 고저	고지 곧대로	▶걸 고제 안 들엄저. (그것을 곧이(있는 그대로) 안 듣는다.)
곧게	곧작, 과작	꺾허게	▶함끼 대가리광 갈기 과작 상 들어오는다. (함께 대가리와 갈기가 곧작 서서 들어오는데.)
곧고루	곧로로, 곧호로	곧로로	▶곧로로 뿌리라. (곧고루 뿌려라.)
곧작, 곧바로	구작, 구짱	구작	▶이 길로 구작 감서. (이 길로 곧장 가십시오.)

類意 표준어	사전수록 방언부사	체록한 방언부사	용례(표준어 해석)
구태어	구티어	역블로	▶ 구티어 <u>흔덴</u> 하면 말리진 안으켜 (구태어 한다면 말리진 않겠다.)
공연스래	괘약시	건-달, 쓸떼기어시	▶ <u>괘약시</u> 잘못했저. (공연스래 잘못했다.)
고이	괘양, 고양	꺾양	▶ <u>괘양</u> 간직하여. (고이 간직해.)
그다지	그닷, 그덜		▶ <u>그닷</u> 멀진 안하여. (그다지 멀지는 않아.)
거기(저기)	그되	그디	▶ <u>그되</u> 가 봅주. (거기 가 봅시다.)
그리, 그쪽으로	그래	저쪽으로	▶ <u>그래</u> 가게. (그리 가자.)
거저, 공으로	그자	공겔로	▶ <u>그자</u> 얻는 건 문제가 있주. (거저 얻는 건 문제가 있다.)

※ <참고>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부사의 용례를 일부만 소개하고 있는데, 원 논문에는 160개의 용례가 소개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4. 제주 방언 부사의 분류

앞에서 다룬 국어의 부사 분류 기준에 적용시켜 제주 방언의 본래부사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부사

(1) 때의 점을 보이는 것

일찌거니(일찌갱이), 벌써, 꺾사(꺾세, 꺾췌), 따시(또시), 꺾자, 어느제

(2)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느랑(니향, 니랑), 오래, 꺾, 내낭, 죽장, 장호래로, 흥상, 예점에

(3)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몬저(모네, 몬침), 미르세(미룻), 진직, 혼되(꺾찌, 꺾치), 꺾티(꺾띠), 흙치, 직시, 이땅(이 따그네, 이따가)

(4)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

즈주, 처엄(채얌), 굴팍, 그제사, 따시(또시), 들구, 홀터, 지리, 자꼬, 자나게나, 고들배(고 들배)

2) 치소부사

- (1) 곳 : 저되(저기), 그되, 여되(이되), 하근되(하간되), 요되, 어되
- (2) 쪽 : 이래, 그래, 저래, 구짱(구작), 곧작(과작), ㄱ로
- (3) 뜨기 : ㅂ작

여기서 '이래, 저래, 그래, 저되, 그되, 여되, 요되' 등은 어형이 대명사와 같으나 독립해서 체언으로 쓰이면 대명사가 되고 다른 말을 한정하면 부사가 되는 특이한 형태이다.

3) 상대부사

- (1) 바로 모양부사

① 속모양

ㄱ득, ㄱ딱, 거스로, 거쑈(거센, 걸른, 얼뜻), 고제, 궤양(고양), 들읍더(들립다), 물꾸무미, 문득, 부리나개, 손소, 울러이, 질그시, 드근, 골로로(골호로), 빙삭이, 혼차(혼체), 궤약시, 크쿨(크컬), 오꽃, 온차, 밀꾸루시, 무장, 츠츠, 술쨌기(술작), 줄근, 줄바로, 날치락, 편찌, 혼저

② 겉모양

거령챙이(거령쟁이), 두령챙이(두령챙이, 두령성이), 오고쟁이, 팬지룽이, 벌락, 박삭, 여부룩스부룩(으보룩스보룩)

- (2) 건너로(간접) 모양부사

뜨로(트로), 아모리(암만), 흙부로(흙블로), 기영, 가로각석(질로지씩), 하

4) 정도부사

- (1)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정도부사

ㄱ장, 깨, 너미, 대걸릉, 다몬(달몬), 하도, 혼끗드로(혼긋드로, 혼그뚜르, 혼긋디로), 문딱(문작), 질(첼), 즌못, 활썸(홀썸), 쨌다, 해, 하영(만히), 제뻬, 뉘우(뉘게, 되우), 실큰(실긋), 족족

- (2)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정도부사

제우(제위), 거진(거자, 건쑈), 두루, 오족, 조끔(조끔, 조곰), 호살(호끔), 족영

5) 화식부사(진술부사)

- (1) 풀이말의 단정을 요구하는 부사

- 강조적인 것 : 여북, 억질로, 무작
- 단정적, 필연적 : 춤, 그자, 똑, 기여이, 느시, 곳곳내, 곳곳이, 웬똥
- 비교적, 비유적 : 도리어, 구티여, 그닷(그뎃), 기영저영, 원간(원체)
- 부정적 : 영, 퍼찌(번찌), 아이(앙이), 흙치, 쑈체로(쑈츠로), 아시여, 쟁실

(2) 의혹이나 가설을 요구하는 부사

- 의혹, 질문, 반어 : 게무로, 무사(똘), 흘믄며, 역불로(역불), ㄱ딱
- 추측 : 아매, 츄마, 아며도
- 가설적 조건 : 아모리, 함마트민(함마테민, 함마떼민, 함마떼민, 함마)

(3) 바람을 보이는 부사

- 츄라리(출하리), 하다(하다)

6)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앞에 간 말을 이어서 그 뒤에 오는 말을 꾸미는 부사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하여 온 다섯 가지 부사(시간, 정도, 처소, 상태, 화식)는 다 앞의 말을 잇는 일이 없이 제 홀로 서서 그 뒤의 말을 꾸미는 일을 하는 것이지마는 여기서 말하는 접속부사는 반드시 앞에 가는 말을 이어 받아서 제 구실을 하는 부사이니 이것이 다른 부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된다.

제주 방언 본래부사 중 접속부사의 예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게거든, 게고제고, 게나네(게난), 게당, 게매, 게민, 게도(게도), 게므로(게므로), 게나제나, 아이카, 야칸, 기영아네도

Ⅲ. 제주 방언 부사의 호응 관계

한 문을 구성하고 있는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 서로 일정한 형태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 현상은 요소 사이의 공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문법적으로는 거의 의무적인 일치를 요구하는 규칙이다. 이 모든 규칙은 성질상 호응(呼應) 또는 상응(相應)이라 한다.¹⁹⁾

부사는 용언을 수식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부사가 형용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동사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또는 용언 공통으로 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하여 부사의 기능상의 특징을 살피려 한다.

1. 시간부사의 호응

제주 방언 시간부사는 대체로 시간 표시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수식 기능을 겸한다. 제주 방언 시간부사의 호응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19) 김민수(1974), 국어문법론, 일조각, p.297.

1) 시간부사+동사형

- 일찌거니 일어났저. (일찍 일어났다.)
- ㄴ자 안 가고 뭐 햄서? (아직도 안 가고 뭐 해?)
- 언제 올티? (언제 올 거니?)
- 장마철이라 비가 장흐레로 암저.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
- 이번참에 훔치 해야주.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해야지.)
- 이따 보명 가주. (이따가 보면서 가겠다.)

이와 같은 형태로 호응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 오레, 예점에, 돈저, 미르세, 죽장, 직시, 진직, 굴팍, 그제사, 자꼬, 자나께나, 고배, 들구, 훔터, 지리, 흥상 등

2) 시간부사+ 동사, 형용사 공동형

- ㄹ(ㄹ사, ㄴ째)
 - 고쎌 와수다. (받근 왔습시다.) <동사와 호응>
 - 그 사람 고쎌 이디 이선게마는 (그 사람 아까 여기 있었는데) <형용사와 호응>

위의 예를 보면 ㄹ(ㄹ사, ㄴ째)는 동작성 용언인 '오다'와 상태성 용언인 '있다'와 끝루 어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들 수 있다.

- 벌써
 - 벌써 끝나부런. (벌써 끝났다.) <동사와 호응>
 - 그런 일은 벌써 이섯주. (그런 일은 벌써 있었다.) <형용사와 호응>
- 느랏
 - 느랏 일했주. (늘 일했다.) <동사와 호응>
 - 느랏 어서라. (늘 없더라.) <형용사와 호응>
- 내남
 - 저슬 내남 춥드라. (겨울 내내 춥더라.) <동사와 호응>
 - 집에만 내남 잇젠 한 힘드나? (집에만 계속 있으려 하니 힘이 드니?) <형용사와 호응>
- 혼디(ㄴ치, ㄴ찌)
 - 혼디 가게. (함께 가자.) <동사와 호응>
 - 혼디 잇게. (함께 있자.) <형용사와 호응>
- 즈주
 - 즈주 가 보라게. (자주 가 보라.) <동사와 호응>
 - 즈주 잇주. (자주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처엄(체얌)
 - 체얌 본 순간부텀 (처음 본 순간부터) <동사와 호응>

- 채얌 잇는 일은 아니주. (치음 잇는 일은 아니다.) <형용사와 호응>
- 따시(또시)
 - 따시 보게. (다시 보자.) <동사와 호응>
 - 이런 일은 따신 어실거라.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 <형용사와 호응>

이상에서 제주 방언 시간부사는 동사하고는 잘 어울리나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없고, 형용사·동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은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소부사의 호응

국어의 처소부사는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는 있으나,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가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를 인식함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작동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나, 상태동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즉 대부분의 동작동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태동사는 방향성은 없이 공간상의 일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처소부사가 상태동사를 수식 한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는 변하지만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고는 인식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처소부사와 공기할 수 있는 동작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방향의 이동성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순히 존재의 상대적인 위치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방향의 이동성은 '멀어짐, 가까워짐, 오고 감'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존재의 상대적인 위치는 '위, 아래, 앞, 뒤, 오른쪽, 왼쪽' 등의 위치성과 공기하게 된다.

1) 처소부사+동사형

- 이래 왁저. (이쪽으로 온다)
- 그래 감저. (그쪽으로 간다)
- 저래 감저. (저쪽으로 가십시오)
- 이 길로 구짱 감저. (이 길로 곧장 가십시오.)
- 가로로 대 보게. (가로로 대어 보자.)
- 바짝 부딩 안즈라. (바짝 붙어 앉아라.)

2) 처소부사+동사, 형용사 공통형

- 저되
 - 저되 감저. (저기 간다) <동사와 호응>
 - 저되 잇저. (저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그되
 - 그되 감저. (거기 간다.) <동사와 호응>
 - 그되 잇저. (거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요되
 - 요되 왓저. (요기 온다.) <동사와 호응>
 - 요되 잇저. (요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이되
 - 이되 왓저. (여기 온다.) <동사와 호응>
 - 이되 잇저. (여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하근되
 - 하근되 탕기봐도. (여기저기 다녀보아도) <동사와 호응>
 - 하근되 잇저. (여기저기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어되
 - 어되 감시냐? (어디 가느냐?) <동사와 호응>
 - 어되 이시냐? (어디 있느냐?) <형용사와 호응>

제주 방언 처소부사는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은 없고, 방향이나 거리(동적 의미)를 나타내는 처소부사는 주로 동사와 어울리고, 곳(정적 의미)을 나타내는 처소부사는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상태부사의 호응

상태부사(양태부사)는 다른 부사들에 비해서 부사의 원초적 기능인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용언과 수식 관계에 놓이는 상태부사(양태부사)의 의미 영역은 시간, 처소, 정도 부사들과는 달리 무척 넓다고 볼 수 있다.²⁰⁾

여기서 용언 수식의 기능을 가장 다양하게 나타내는 제주 방언 상태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상태부사+동사형

- 문득 생각나민 (문득 생각나면)
- 혼저 읍서 (어서 오십시오.)
- 빙삭이 웃고 있다. (빙그레 웃고 있다.)
- 까딱 잘못허당 푸더질뻔 했저. (까딱/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질 뻔 했다.)
- 빨리 돌으라. (빨리 달려라.)

이와 같은 형태로 호응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거슨, 거령칭이, 고제, 구짝, 궤양, 궤약시, 들읍더, 무장, 물꾸루미, 밀꾸루시, 벌락,

20)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 수식 연구", 국어연구 제 37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p.60. 이 논문에서 말하는 '양태부사'는 필자가 사용한 용어인 '상태부사'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박삭, 불치락, 부리나개, 슬제기, 손소, 오꽂, 은차, 졸바로, 졸근, 질그시, 츄츄, 쿠
 쿨, 팬지롱이, 훔부로 등

2) 상태부사+형용사형

- 편쩍 아무것도 웃어노난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 드끈 싸 줘서. (가득 싸 주었어.)
- 거스로 잊져. (거꾸로 있다.)
- 울렀이 몽둥이 영 양손으로 지평 산 이서라. (우두커니 몽둥이 이렇게 양손으로 짚어 서 있더라.)
- 하 큰 거. (그리 크지 않은 거)
- 운동장에 사름덜이 그득 모여들었져. (운동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들었다.)

3) 상태부사+동사, 형용사 공통형

- 끌로로
 - 끌로로 뿌려라. (끌고루 뿌려라.) <동사와 호응>
 - 끌로로 이서라. (끌고루 있더라.) <형용사와 호응>
- 혼차
 - 혼차 살았져. (혼자 산다.) <동사와 호응>
 - 혼차 잊져. (혼자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오고쟁이
 - 오고쟁이 일어난 가드라. (고스란히 일어나서 갔다) <동사와 호응>
 - 오고쟁이 잊져. (그대로 있다.) <형용사와 호응>
- 아모리
 - 아모리 참아도 화가 안 풀럼져.
 - ! (아무리 참아도 화가 안 풀린다.) <동사와 호응>
 - 아모리 잇다흔들 얼마나 이시커나?
 (아무리 있다고 해도 얼마나 있겠니?) <형용사와 호응>
- 뜨로(투로)
 - 부모와 자식이 뜨로(투로) 산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산다.) <동사와 호응>
 - 뜨를 맨 뜨로 이서야 안 ㄸ퇴진다.
 (싸울 때는 따로 있어야 안 싸워진다.) <형용사와 호응>
- 질로지썩
 - 부모와 자식들이 질로지썩 살았져.
 (부모와 자식들이 저마다 각각 떨어져 살고 있다.) <동사와 호응>

- 질로지썩 이서도 ㄴ치 이신 거 담따.
(따로따로 있어도 같이 있는 것 같다.) <형용사와 호응>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제주 방언 상태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형용의 상태를 표현하며 동작성 용언을 주로 수식하고, 상태성 용언을 수식하기도 한다. 즉 동사하고 어울리는 것이 훨씬 많은 편이지만 형용사하고 어울리는 것들도 있고,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부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정도부사의 호응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가 용언류와 공기하는 양상과 그에 따른 제약을 분석한 논문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²¹⁾

주로 정도부사는 [+상태성] 용언과, 상태부사는 [+동작성] 용언과 공기함이 원칙이나, 용언의 하위자질에 따라 [+사고성] 및 [+존재성] 용언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국어의 한정부사(정도, 상태부사)들은 [+상태성]의 용언자질과 어떠한 특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두드러지는 사실이다. 이들이 용언을 지배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총괄, 분석되어 [+상태성] 자질과는 상관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 ① 정도부사+[+상태성]→용언의 강의화(強意化)
- ② 상태부사+[+동작성]→동작의 상태화(狀態化)
- ③ 정도부사+상태부사+[+동작성] 용언→상태화의 강의화(強意化)

정도부사는 동일 자질인 [+정도성] 용언을 건인(牽引)하나, 상태부사는 [+상태성] 용언을 배척하는 대조를 보이기도 한다. [+상태성] 용언은 [+정도성]의 자질을 겸유하기 때문에 정도부사와 공기할 수 있으나, [+동작성] 용언은 그 자질의 결여로 공기가 불가하다. 그러나 [+동작성] 용언도 상태부사에 의해 [+정도성]의 자질이 부여될 때에는 정도부사와 공기하여 강의(強意)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제주 방언 정도부사의 호응 관계를 구체적 예를 통해 살피기로 한다.

1) 정도부사+형용사형

- ㄴ잘 높다. (가잘 높다.)
- 깨 하다(多).(꽤 많다.)
- 훨씬 좋다. (훨씬 좋다.)
- 너의 크다. (너무 크다.)
- 하도 많아서.(무척 많아서)
- 질 좋다. (제일 좋다.)

21) 홍사만(1977),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의 비교 연구", 동양문화연구소, pp.52~53.

- 어제보다 두루 아팠저. (어제보다는 덜 아프다.)
- 오죽 아프면 경 하쿠냐? (오죽 아프면 그렇게 하겠니?)

위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 정도부사는 사물의 높이, 분량, 상태, 크기의 정도를 다 나타내고 있어 상태성 용언인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정도부사+동사형

- 모딱 먹었저. (모조리 다 먹었다.)
- 저거 잡아다 주난, 호긱드로 잡아난 광광 무섭게 죽여 붙거든.
(저거 잡아다 주니까 한꺼번에 모조리 잡아놔서 광광 무섭게 죽여버린다.)
- 대걸룽 해도 된다. (대갓 해도 된다.)
- 즈뭇 궁금하여. (자뭇 궁금하다.)
- 족족 먹어라. (조급씩 먹어라.)
- 보채는 애기 채우 달랠저. (보채는 아기 겨우 달렸다.)
- 일이 거자 끝나감저. (일이 거의 끝나간다.)
- 이서난 일은 퀵다 굴으라게. (있었던 일은 모두 말해 보아라.)
- 짐 정리가 혜 뤄 감저. (짐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간다.)
- 재뻬 잘 햐저. (제법 잘 한다.)
- 실큰 먹으라게. (실컷 먹어라.)

3) 정도부사+동사, 형용사 공통형

또한 제주 방언 정도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와 공통으로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정도의 낮음을 보이는 '하품'과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하영'을 예로 들어 보겠다.

(1) 하품/하셀

■ 동사와 호응하는 경우

- 이래 하품/하셀 비킵서. (이쪽으로 조급 비키시오.)
- 그 떡 느만 먹을타? 나도 하품/하셀만 도라.
(그 떡 너만 먹을래? 나도 조급만 주라.)
- 12시 하품/하셀 넘어수다. (12시가 조급 넘었습니다.)

■ 형용사와 호응하는 경우

- 그디 바당은 하품/하셀 짚어, 이? (거기 바다는 조급 짚지, 그렇지?)
- 삼촌네 발이 우리발보다 하품/하셀 널플거우다.
(삼촌네 발이 우리발보다 조급 넓을 겁니다.)
- 그디가 이디서 하품/하셀 빈디우다. (거기가 여기서 조급 가깝습니다.)
- 이 끈, 하품/하셀 잘라시민 좋으켜. (이 끈 조급만 짧았으면 좋겠다.)
- 방이 하품/하셀만 커시민 (방이 조급만 컸으면)

- 흐끔/흐썰 노프게 올라라. (조금 높게 올라라.)

위에서 ‘흐끔/흐썰’은 후행하는 깊이, 면적, 거리, 길이, 크기, 높이 등의 공간 척도성 형용사에 호응하는 문장들이다. 이들에서 정도부사인 ‘흐끔/흐썰’은 이 형용사들의 척도를 많은 편이 아닌 ‘조금’으로 제한하고 있다.²²⁾

(2) 하영

- 동사와 호응하는 경우
 - 돈이 하영 들 테주. (돈이 많이 들 기야.)
 - 밥을 하영 먹이사 심이 나주.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 형용사와 호응하는 경우
 - 제주도에는 돌도 하영 잇수다. (제주도에는 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하영’은 ‘많이’의 뜻으로 정도의 높음을 보이는 정도부사로서, 각각 후행 서술어 ‘들다(동사), 먹다(동사)’ ‘있다(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주 방언 정도부사는 형용사와 어울리는 것, 동사와 어울리는 것, 그리고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이 골고루 있음을 알아냈다.

5. 화식부사의 호응

국어의 화식부사는 용언의 의미 내용에는 관계없이 문장에 드러나는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공기하는 공기기능을 가진다. 즉 화식 부사(서법 부사라고도 함)는 화자가 문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순히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문장 전체에 대하여 의미적 제약을 가지는 것이다.

화식 부사는 문장의 서법적인 의미인 가능성, 불가능성, 필연성, 개연성, 우연성 등을 표시하는데 국어의 경우 양태, 서법 표시의 접속어미, 종결어미 등의 형식과 호응할 수 있다.²³⁾

제주 방언 화식 부사의 경우도 단순히 용언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아닌 문장 전체에 대하여 의미적 제약을 가지는 점은 다르지 않지만 동사와 형용사 중 어떤 것과 잘 어울리는지 그 호응관계의 용례를 살펴보겠다.

1) 화식부사+동사형

- 기여이 가고 말았저 (기어이 가고 말았다.)
- 억질로 가진 말라. (억지로 가지는 말아라)

22) 강정희(2005), 제주방언형태변화연구, 도서출판 역락, pp.151~152.

23) 은영두(1986), “현대 국어 부사의 통사·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pp. 72~82.

- 무작 먹었저. (모조리/깨끗이 모두 먹었다.)
- 기엿저엿 살다보민 배롱혈 날도 올 테주.
(그럭저럭 살다보면 괜찮아질 날도 오겠지.)
- 느시 안 흐켄 (도저히 안 하겠다고)
- 하마때민 잊어부릴뻔 했주.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 했다.)

와 같이 어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호응을 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 갓갓내, 흐다, 역블로, 아이, 그자, 족, 도리어, 구퓌여, 흙치, 좁체로, 아시여, 생실, 흐
물며 등

2) 화식부사+형용사형

- 여복 굽굽 하민 경해시카? (오죽이나 갑갑하면 그렇게 했을까?)
- 피쩍 웃어노난 (전혀 없어서)
- 엿 뜨날 것 갈진 안하다. (전혀 다룰 것 갈지는 않다)
- 츄 뚝한 노릇이여. (참으로 딱한 노릇이여.)
- 그닷 떨진 않다. (그다지 떨지는 않다.)
- 츠마 경홀 순 엇다. (차마 그릴 수는 없다.)

3) 화식부사+동사, 형용사 공통형

- 무사
 - 그딴 무사 감시나? (거기 왜 가느나?) <동사와 호응>
 - 무사 좋으나? (왜 좋으니?) <형용사와 호응>
- 개무로
 - 개무로 가시카. (설마 갔을까?) <동사와 호응>
 - 돈 꺾 달랜 흐는디 개무로 업던 허카?
!(돈 빌려 달라고 하는데 설마 없다고 할까?) <형용사와 호응>
- 츠라리
 - 츠라리 가지 말라게. (차라리 가지 말아라.) <동사와 호응>
 - 츠라리 어신 개 좋아. (차라리 없는 개 좋아.) <형용사와 호응>

제주 방언 화식 부사의 경우 동사와 어울리는 것이 많고, 형용사와 어울리는 것도 있으며,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도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어휘 중에서 본래부사를 내용에 따라 시간부사, 처소부사, 상태부사, 정도부사, 화식부사, 접속부사로 나누었고, 접속부사를 제외한 부사들에 한해서 용언과의 호응 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우선, 시간부사, 처소부사는 동사하고만 어울리거나,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다. 그 외에 상태, 정도, 화식 부사는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 동사와 어울리

는 것, 동사와 형용사 공통으로 잘 어울리는 것들로 그 유형이 끌고루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 방언 본래부사는 동사와의 호응 빈도수가 형용사보다 훨씬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용언과의 호응 관계를 통해 고찰한 제주 방언 부사의 기능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① 수식 기능

방언 정도부사는 주로 상태성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고, 방언 상태부사는 주로 동작성 용언을 수식하며, 방언 처소부사는 방향성, 위치성의 자질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

② 시간 표시 기능

방언 시간부사는 대체로 문장 전체의 시간 표시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일부 수식 기능도 겸한다.

③ 공기 기능

방언 화식부사는 단순히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문장에 드러나는 말할 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공기하는 공기 기능을 가진다.

IV.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적 특징

제주도 방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어휘의 특이성이다. 국어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언중들에게 있어서 제주도 방언은 그 어휘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돋보이고 생경한 언어로 느끼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제주 방언은, 첫째, 제주 특유의 지역적 특성에서 연유된 특수한 어휘들이 많고, 둘째, 기본 의미는 같으면서도 그 주변적이고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가 많으며, 셋째, 지금은 사라진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어(古語)들이 많이 잔존해 있다. 넷째, 한 단어에 대해서 그것의 다양한 형태가 공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다섯째로 'ㅇ'의 접미를 통한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을 제주 방언 부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 지역 특수 어휘

제주 방언의 어휘들은 표준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의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어휘들이 많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사 : 예

① 느 무사 경 험시나? (너 왜 그러니?)

② 무사 경 다울림디? (왜 그렇게 재촉하느냐?)

'무사'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생소한 제주 방언의 하나로서 표준어의 '왜'에 해당하며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2) 두루 : 덜

① 두루 아팠저게. (덜 아팠다.)

② 두루 먹어진 생이여. (덜 먹어진 모양이다.)

③ 두루 익은 감 (덜 익은 감)

'두루'라는 말이 표준어로는 '빠짐없이, 골고루' 또는 '널리,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덜'의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 '어떤 기준보다 약하게, 정도에 못 미치게'라는 뜻이 있고, 둘째, '보다 적게, 보다 줄여서' 셋째,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게'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말 역시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3) 혼저 : 어서, 빨리

① 혼저 읍서예. (어서 오십시오.)

② 혼저 돌으라. (빨리 달려라.)

'혼저'라는 말은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발음을 잘못 인식하여 '혼자'라는 말로 들을 때가 있어서 의미에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서, 빨리'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 역시 표준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지역 특수 어휘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고들베'(표준어로 '연달아'의 의미), ㄱ사(표준어로 '아까, 방금'의 의미), '몬딱/몬 짱'(표준어로 '모두'의 의미), '오고생이'(표준어로 '본디 그대로'의 의미), '오끗'(표준어로 '그만, 완전히'의 의미) 등이 표준어와는 의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말들로서 제주 방언에서만 찾을 수 있는 있는 지역 특유의 어휘들이다.

2. 미세한 의미 차이

제주 방언에는 기본 의미는 같으나 미세한 의미 차이로 다의성(多義性)을 띠는 어휘가 많고, 부사에서도 그 의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함치** : '한꺼번에, 함께'와 '전혀(부정의 뜻)'의 두 가지 상이한 뜻을 드러낸다.

① '함께, 한꺼번에'의 의미

• **함치**덜 떠나라. (**함께**들 떠나라.)

• **함치** 해 불러. (**한꺼번에** 해 치위라.)

② '결코, 전혀'의 의미

- 그까짓거로는 흐치 안 된다.(그 정도로는 결코 안 된다.)
- 그건 흐치 아니여.(그것은 전혀 아니다.)

(2) 흐저(어서, 빨리)

- ① '어서'의 의미 : 반기는 의미가 강하다.
 - 흐저 읍서. (어서 오십시오.)
- ② '빨리'의 의미 :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의미가 강하다.
 - 흐저 돌으라. (빨리 달려라.)

(3) 드끈, 득끈 (실컷, 가득/넘치게)

- ① '실컷'의 의미
 - 술을 드끈 마셨다. (술을 실컷 마셨다.)
- ② '가득'의 의미
 - 드끈 싸 주라. (가득 싸 주라.)

3. 고어(古語)의 잔존

어휘 분야에 있어 제주 방언이 다른 방언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다 할 특징은 고어(古語)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제주 방언에는 중세 국어 내지 근대 국어의 고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잔존해 있으며, 이러한 고어형의 어휘들을 제주 방언의 언중들은 일상 언어 생활에서 빈번히 발화한다. 부사의 경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ㄹ장('가장'의 의미), ㄹ세('아까, 조금전, 방금'의 의미), ㄹ자('아직도,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의미), ㄹ치('같이, 함께'의 의미), ㄹ('금방, 이제'의 의미), ㄹ만히('가만히'의 의미), ㄹ먼저('먼저'의 의미), ㄹ써('벌써'의 의미), ㄹ리('빨리'의 의미), ㄹ연히('자연히'의 의미), ㄹ츄니('천천히'의 의미) 등의 예들은 특히 아래아(·)가 들어간 말들로서 이런 예는 그 밖에도 매우 많다.

앞에 든 예 외에도 제주 방언의 보수형을 소개하면, 아이('아니'의 의미), 족영('조금'의 의미), 하영('많이'의 의미), 모녀('먼저'의 의미), 벨부('벨로'의 의미), 괴양('곱게, 조심히'의 의미) 등이 있다.²⁴⁾

4. 여러 형태의 공시적 사용

제주 방언에는 한 어간의 어형이 2중 3중 4중 등 여러 어형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이 있

24) 강정희(2005), 제주 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pp.262~264.

다. 즉, 한 어사가 쌍형(雙形)으로 나타남은 물론, 말에 따라서는 서너 개 이상의 어형으로 나타나서 이들 어형이 함께 공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주 방언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준어의 '그러거든'에 해당하는 말로 '개거든, 개진, 개경, 개걸랑, 개거들란, 개거들랑'이 공시태로 쓰이며 지역에 따라 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다. 또, 표준어의 '전부'에 해당되는 제주 방언 부사로는 '몬, 몬딱, 몬짜, 멘딱, 말짱, 모도, 모다, 모두'가 역시 공시태로 쓰이며 두루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외에도 '조금'을 뜻하는 제주 방언에 '조금, 조금, 조끔, 쯤, 조금, 줌, 흘썰, 흘썰, 흘끔, 흘끔' 등의 형태가 있고, '얼른'을 뜻하는 말에 '거슨, 거센, 걸른, 얼푯'이 있으며, '거의'를 뜻하는 말로 '거진, 거자, 건쭤'이 있는데, 이들 예들도 역시 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의미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5. 부사 만들기의 특이성

제주 방언의 조어법의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ㅇ'을 접미시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명사인 경우 호칭에서 '어멍(어머니)', '아방(아버지)', '할망(할아버지)', '할으방(할아버지)', '아지망(아주머니)', '아지방(아주버니)' 등의 말에 'ㅇ'을 접미시켜 단어를 형성하고 있다.

부사인 경우도 'ㅇ'을 접미시켜 단어를 형성한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영저영(그럭저럭)', '하영(많이)', '죽영(조금)'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고, 상태부사인 경우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특히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말들이 많다. 그 예로는 '곰삼곰삼(눈을 떴다 감았다하는 모양)', '드랑드랑(물체가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 '드랑드랑(물체가 매달려 있는 모양)', '어장바장/어상바상(서로 비슷한 모양)', '흥글망글(걸음 걸을 때 허리를 흔드는 모양)' 등의 말이 있으며, 이들 어휘들의 공통점은 'ㅇ'이 들어감으로써 어감(語感)이 경쾌해진다는 점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제주 방언의 부사를 조사하여 분류하고, 부사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아 제주 방언의 특질을 찾아보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연구 대상으로는 「제주어 사전」(제주도, 1995)에 실린 부사와 일부 노년층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사 중에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부사는 그 단어 형성에서 본래부사와 전성부사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의성어나 의태어, 첩어를 제외한 본래부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제주 방언 자료를 조사하여 추출한 바를 표준어와의 대비를 통해 제주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 언중들에 의해 쓰이는 말 중 필자가 직접 채록한 부사를 포

함시켜 그 용례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의 풍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 방언 부사의 갈래를 최현배의 분류 방식(시간, 처소, 정도, 상태, 화식, 접속 부사)에 적용시켜 나눈 후 각각의 예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제주 방언 부사의 갈래를 분류해 내는 과정을 통해 언중들에게 점차 외면당하고 있는 방언들을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제주 방언 부사가 한정하는 용언과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시간·처소 부사'는 동사하고만 어울리거나, 동사, 형용사 공통으로 어울리는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태·정도·화식 부사'는 형용사하고만 어울리는 것, 동사와 어울리는 것, 동사와 형용사 공통으로 잘 어울리는 것의 세 가지 유형이 골고루 존재하고,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 방언 본래부사는 동사와의 호응 빈도수가 형용사보다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사와 용언과의 호응 관계를 고찰한 결과 제주 방언 부사의 기능을 정리하면,

첫째, 방언 정도부사는 주로 상태성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고, 방언 상태부사는 주로 동작성 용언을 수식하며, 방언 처소부사는 방향성, 위치성의 자질을 가진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방언 시간부사는 대체로 문장 전체의 시간 표시의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일부 수식 기능도 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방언 화식부사는 단순히 용언의 의미 속성을 수식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문장에 드러나는 말할이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범주와 공기하는 공기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다.

제주 방언 부사의 어휘적 특징으로는,

첫째, 제주 특유의 지역적 특성에서 인유된 특수한 어휘들이 많은데 그 예로, '고들베(연거푸, 연달아)', '무사(왜)', '궂사(아까)', '흔저(어서, 빨리)', '두루(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본 의미는 같으면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 어휘가 많다. 그 예로 '함치'라는 말은 '한꺼번에,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고, '결코, 전혀'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여 다의성(多義性)을 띠게 된다.

셋째, 지금은 사라진 중세국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고어(古語)들이 많이 잔존해 있다. 특히 아래아(·)가 남아 있는 어휘들이 많아서 제주 방언은 고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 단어에 대해서 그것의 다양한 형태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표준어의 '그러거든'에 해당하는 말인 '개거든, 개건, 개경, 개질랑, 개거들란, 개거들랑', 표준어의 '전부'에 해당하는 말인 '몬, 몬딱, 몬작, 멘딱, 말짱, 모도, 모다, 모두' 등이 있으며 이들은 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ㅇ'의 접미를 통한 조어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영저영(그러

제력), '하영(많이)', '죽영(조금)', '곰상곰상(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모양)', '드랑드랑(물체가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과 같은 예를 들 수 있고, 상태부사인 경우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특히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말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타 지역과 크게 구별되는 독자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제주 방언이 근래 들어서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 관광객들의 빈번한 왕래, 언론 매체의 영향 등으로 급속하게 표준어화 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제주 방언의 옛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노년층이 생존해 있는 기간 안에 풍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통한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이것의 분석과 문법 체계의 정립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곽충구(1999), "방언·사회언어학", 「국어학연감」.
-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 수식 연구", 「국어연구 제 37호」,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80), "국어의 위치 제약에 대하여", 「연암 현평효 회갑기념 논총」.
- 김기혁(1995), 「국어문법연구 형태·통어론」, 도서출판 박이정.
- 김민수(1974),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성룡(2004), "제주방언수량사 어휘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곤(1976), "국어의 본래부사고", 「어문논집 11호」, 중앙어문학회.
- 김현권(1999), "어휘부구축을 위한 현대 한국어 부사의 기술-한국어 부사분류와 기술의 문제", 「언어학 제24호」, 한국언어학회.
- 김형규(1972), 「국어학개론」, 일조각.
- 남기심·고영근(1999), 「표준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승현(1990), "현대국어의 반복부사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순덕(1997), "제주 방언 지정사 부정 표현", 「제주대학교 국문학보 14호」.
- _____ (2000), "제주 방언의 보조 용언 연구", 「탐라문화 21호」.
- 서정수(1975), "국어부사류어의 구문론적 연구", 「현대국어문법」.
- _____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 _____ (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화정(2000), "국어부사의 통사적 제약성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낙수(1975),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국어국문학 68~69」, 국어국문학회.
- 성낙수 외 공저 (1991), 「국어사 개설」, 신원문화사.
- 손남익(1999), "국어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학 제 9집」, 한국어학회.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심제기(1983), 「국어어휘론」, 집문당.

- 안병희·이광호 공저(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오창명(1995), “제주도 방언에 대한 학술 조사의 성과와 반성”, 「백록어문 11호」.
- _____ (2000), “제주도 방언연구의 동향과 과제”, 「탐라문화 21호」.
- _____ (2004), “방언과 국어 교육”, 「백록어문 18~19호」.
- 윤현주(1998), “근대 국어 정도부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 I 품사」, 역락.
- 이기문(1993), “제주 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13호」.
- 이성규(1988), 「빙인구방비론」, 형실출판사.
- 이승녕(1985),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연구총서 5」, 탑출판사.
- 이영희(1982), “제주도방언의 상징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주행(1992), 「현대국어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승철(1998), “제주도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 8권 제4호 98년 겨울」.
- 채 완(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출판부.
- 채희락 (2001), “한국어부사어의 분류와 분포 제약”, 「한국언어정보학회 2001학술대회논문집」.
- 최창렬·심재기·성광수(1986), 「국어의미론」, 개문사.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 형태론」, 샘출판사.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홍사만(1977),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의 비교 연구”, 동양문화연구소.